

국어 대등 접속문의 성립 조건과 구조*

고재설
(우석대학교)

Koh, Jae-sol. 2003. On the Well-formedness Conditions and the Structure of Coordinate Sentence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2), 135-156.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well-formedness conditions of coordinated sentences in Korean. After a brief review of former researches I raise many problems about coordination in Korean. First, sentential coordination is possible in Korean as many other languages. Second, there are many restrictions in sentential coordination, some of them syntactic, others morphological, and still others semantic. In subsection 3, I propose that the same quality of predicational meaning rather than the existence of common topic between the two clauses coordinated is the well-formedness condition on sentential coordination in Korean. In subsection 4, I propose that the conjunctive in Korean is not 'woa(와)' and '-ko(-고)' but 'kuriko(그리고)'. Coordinated structures reflecting these facts are proposed also.

주제어(Key words): coordination, conjunctive, common topic, the same quality of predicational meaning, wellformedness condition

1. 머리말

1.1 목적과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 대등 접속문의 성립 조건을 고찰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며, 또한 대등 접속의 접속사 '그리고'를 상정하여야 함을 밝히는 것이다.¹⁾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주로 다룰 대상은 '-고'로 이루어진 접속

*이 논문은 2003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1) 접속문이라는 술어는 몇 가지 의미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둘 이상의 절이나 구가 접속되어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문장을 접속문이라고 칭하고, 접속되는 둘 이상의 절/구를 각각 선행절/구와 후행절/구라고 칭하기로 한다. 또한 접속사라는 용어도 논자에 따라 달리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고' 등의 어미는 단지 '어미'라고 칭하고, '와' 등의 조사도 단지 조사라고 칭하고자 한다.

문인데, 명사구 접속과 부사구 접속 등도 또한 논의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고’는 국어의 접속 어미들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대등 접속뿐 아니라 종속 접속에도 쓰이며, 또한 동사구 내포문의 보문자로도 쓰이는 등 그 기능이 다양하고, 따라서 그 의미 소성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국어에 대등 접속의 어미가 혹시 존재한다면 아마도 가장 유력한 후보일 것이다. 한편 절의 접속에 서와는 달리 명사구의 접속에서는 ‘와’가 주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대등 접속의 구성을 이룬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견해로는 명사구 등의 구의 접속과 동사절 등의 절의 접속이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대비를 위하여 명사구 등의 접속에 쓰이는 ‘와’와 절 접속의 ‘-고’를 비교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2 배경과 연구사

국어의 접속문에 대한 관심은 꽤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주시경(1910)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구조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1) 가. 이 소는 누르고 저 말은 꺾다.(본드 4)
 나.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본드 5)
 다. 소와 말이 풀을 먹소.(본드 6)
 라. 내가 소와 말과 오리와 거위를 기르오.(본드 7)

여기에서는 각각 선행절/구와 후행절/구가 ‘형용사절 + 형용사절’, ‘동사절 + 동사절’, ‘명사구 + 명사구’의 관계에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절의 접속과 구의 접속을 굳이 따로 보지 않고 동일한 접속 현상으로 다루고자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최현배(1955:833)에서도 접속문의 분류 등에 대하여 꽤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즉, “별린 월은 뜻으로는 각각 독립한 마디를 다만 형식으로 서로 이은 것인 고로, 그 뜻에서 그리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상으로는나 마 서로 합하게 된 이 만큼, 그 두 마디 사이에는 얼마큼의 관련이 없지 아니하다. 곧 그 두 마디는 시간상 공간상 또는 사상상으로 서로 접근(接近)한 것임을 나타내느니라.”라고 한 것이다. (그 아래에 11개의 예문을 제시하였는데, 유형별로는 ‘형용사절 + 형용사절’, ‘동사절 + 동사절’, ‘계사절

+ 계사절²⁾이 있다.²⁾ 각각 하나씩만 보이기로 한다.)

(2) 가.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나. 범은 가죽을 쓰고, 사람은 마음을 쓴다.

다. 순(舜)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눈의 띈다. 첫째, “그 두 마디는 시간상 공간상 또는 사상상으로 서로 접근한 것”이라는 말과, 둘째, 그 예로 제시된 것들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어가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상의 관련성에 관한 언급이고, 후자는 통사적인 관련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초기의 연구를 지나, 접속문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양인석(1972)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연구에서는 주로 접속 어미들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접속문의 구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고심하였는데, 의미론적으로 볼 때에는 아래 (3가)와 같은 구조가 더 타당해 보이나, 다른 사항을 고려하면 아래 (3나)와 같은 구조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3) 가.
$$\begin{array}{ccccccc} & & & D & & & \\ & / & / & | & \backslash & \backslash & \\ S1 & \text{conj} & S2 & \text{conj} & \dots & S_n & \end{array}$$

나.
$$\begin{array}{ccccccc} & & & D & & & \\ & / & & | & & \backslash & \\ S1\text{-conj} & & S2\text{-conj} & & \dots & S_n & \end{array}$$

양인석(1972)의 어미의 의미에 대한 관심과 또한 접속문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그 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쳐서, 현재까지도 접속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가 어미들의 의미 분석에 치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³⁾

어미의 의미 특성 이외에 국어에서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을 구별할

2) 서술어가 동사인 절을 동사절, 형용사인 절을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또한 ‘명사 + 계사’ 구성이 서술어가 되는 절을 편의상 계사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 접속문에 대한 연구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태룡(1998)과 이은경(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대등 접속문을 인정할 경우 그 구조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도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현재까지 보다 우세한 것은 대등 접속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즉, 대등 접속이란 단지 종속 접속의 특별한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서태룡(1979:2)에서의 “실제 언어에서 두 문장이 대등하게 결합하는 경우란 없는 것 같다”는 언급과 이익섭·임홍빈(1983:252)에서의 “... 국어에서 등위접속과 종속접속의 차이가 그 어미 형태의 유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되는 두 문장의 의미론적인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 등이 그런 견해를 대표한다.

대등접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은 비교적 근래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현경(1986)에서는 종래의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구별이 의미에 근거한 것이어서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보며, 따라서 통사적 특질을 고찰함으로써 대등접속을 구별해 낼 수 있는데, 대용화(대명사화, 재귀화, 무형대용화), 주제어 제약(‘는’의 결합) 등의 통사 현상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이 이들 양자를 구별하게 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영희(1987)에서는 등위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은 통사 구조는 동일하나 접속절거리의 의미 관계가 다르다고 보면서, 그런 의미적 관계의 차이가 통사 현상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즉, 동일 접속사의 반복 가능성, ‘하다’ 서술어에의 내포 가능성, 접속절거리의 자리바꿈 가능성, 접속문 줄이기 가능성, gapping의 방향성 원리의 준수 여부, 재귀화의 가능성, 그리고 종속접속문의 선행절은 후행문 속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 등이 등위 접속과 종속 접속의 판별의 통사적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접속문의 성립 조건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현배(1955)의 언급과 서태룡(1979),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언급된 것 정도이다.

최현배(1955)에서, ‘시간상 공간상 또는 사상상으로 서로 접근한 것’들이 접속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예로 ‘동사절 + 동사절’, ‘형용사절 + 형용사절’, ‘계사절 + 계사절’의 접속 유형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대로이다.

서태룡(1979)와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접속문이 성립하려면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공통화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아직까지 논의된

4) 이은경(1998:487)에서는 이런 사정을 “서술어와 관련된 제약, 생략이나 부정과 관련된 현상 등이 간혹 논의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다루어진 현상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Lakoff(1971)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거기에서는 접속문이 적격하려면 i) 선행절과 후행절이 관련성 또는 공통화제를 갖든가, ii) 공통화제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경험, 세상에 대한 지식, 선행 담화, 추가적인 사실들로부터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 기초해서 공통화제를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때의 공통화제란 ‘접속문의 두 절들에 나타나는 동일한 요소’를 가리킨다.

2. 문제의 제기

2.1 국어에서는 대등접속이 불가능한가?

이상의 이 연구와 직접 관련될 만한 연구 배경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반성하게 된다. 접속이란 무엇인가, 절 접속과 구 접속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그리고 접속문의 성립 조건이 무엇인가 등이다.

먼저 접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자. 이에 대한 국어학계의 대표적인 견해는 김영희(1987:56)에 나타나는데, “둘 이상의 문장과 문장을 접속사(연결어미 conjunctor)로써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 구조로 구성해 내는 문법 기제”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결어미로써’ 결합된다는 점과, 또한 ‘문장’(즉, 절)들이 결합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와는 다르게 Grover(1994)에서는 “The term ‘coordination’ is used to refer to the process whereby two or more similar units are grouped together to form a larger unit of the same type.”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절적인 것들의 결합만 접속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단위들을 묶어 보다 큰 동일한 유형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면 모두 접속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영희(1987) 등에서 보는 접속의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 전자의 접속의 개념에서라면 명사구 등의 접속은 접속이 아닌 것으로 된다. 연결어미로써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절과 절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의 개념에서라면 명사구 등의 접속과 절의 접속을 구별할 개념적 동기는 사라지게 된다. 구와 구의 연결이든 또는 절과 절의 연결이든 동일한 단위가 연결되어 보다 큰 동일한 단위를 형성하면 모두 접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접속의 개념으로 어느 것이 더 적절할까?

최근의 통사 이론에서는 절적인 성분들도 IP, VP 등으로 보고 있다. 즉, 명사구나 부사구 등과 마찬가지로 구의 일종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절의 접속과 구의 접속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지며, 따라서 구

의 대등 접속을 인정하되 절의 대등 접속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그 토대를 잃게 된다. 명사구끼리의 대등 접속이 가능하다면, 동사구(또는 VP, IP 등)끼리의 대등 접속이라고 하여 특별히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절의 대등 접속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또 다른 맥락에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견해의 가장 큰 근거는 대등 접속에 사용되는 어미들이 많은 경우에 종속 접속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즉,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이 어미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어야 하는데, 동일한 어미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에 모두 사용된다면, 결국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은 구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된다는 사고이다. 이와 같은 견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어미 중심의 사고, 특히 하나의 어미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형태 일기능)이 최선의 상황이라고 믿는 견해이다. 그러나, 과연 어미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이 설명될 것인가? 더구나 일형태 일기능이 과연 이상적인 언어 상황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언어의 의미적 상황은 거의 무한 집합 또는 연속적 집합의 성격에 가까운 것인데, 그들 각각에 대응될 형태가 하나씩 배정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씩의 기능을 갖는 형태소들이 거의 무한히 존재하여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 형태소들의 기능과 용법을 익혀 사용하여야 하는 언어 학습자에게 거의 무한히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형태 일기능은 언어의 이상적 상황이 아니며, 어미 중심의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어미가 다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역으로 다수의 어미가 동일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동일한 어미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고’ 같은 어미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에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어에 대등 접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대등 접속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또 다른 근거로, 인간 언어의 특성으로서의 선조성을 꼽을 수 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이를 말로써는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필연적으로 어느 한 사건을 먼저 발화하고 다른 사건을 그 다음에 발화해야 한다. 이런 점은 청각적 수단에 의지하는 언어가 시각적 수단에 의지하는 회화, 조각 등의 표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조성은 인간의 세계 인식의 방식과는 때에 따라서 약간의 충돌을 드러낼 수도 있다. 즉, 발화의 차원과 해석의 차원에서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인데, 발화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사건을 단지 나열한 것(즉, 대등 접속 구성)이더라도 때로는 청취자(즉, 해석자)가 그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미의 의미가 때로 모호할 수 있으므로) 전후의 사건이 어떤 필연성에 따라 선후 관계, 인과 관계 등의 의미를 갖는 것(즉, 종속 접속 구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 발화는 대등 접속 구성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종속 접속 구성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접속문 구성의 선후행 절의 의미적 관계에 기초를 두어 국어의 대등 접속을 인정하지 않고자 한 현재까지의 견해들은 접속문의 해석을 오로지 해석자의 논리만으로써 다루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발화자의 논리는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발화자의 논리가 해석자의 논리와 언제나 일치한다면 물론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두 논리에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모든 것을 해석자의 논리만 다루는 것이 정당하겠는가? 발화자의 논리도 해석자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면, 대등 접속의 필수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2.2 가능한 접속과 불가능한 접속

접속이란 전형적으로 대등한 자격을 갖는 구/절들을 결합하여 보다 큰,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때에, 문제는 그 '대등한 자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다.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통사적 자격의 동일성이다. 즉, 명사구와 동사구 또는 명사구와 부사구를 결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통사적 자격이 대등한 것들끼리는 무제한적으로 접속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데, 명사구 접속에서라면 다음처럼 될 것이다.

- (4) 가. 철수가 [밥과 떡]을 먹는다.
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다. 철수가 떡을 먹는다.
- (5) 가. *철수가 [밥과 나이]를 먹는다.
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다. 철수가 나이를 먹는다.
- (6) 가. !철수가 [밥과 수학]을 먹는다.
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다. !철수가 수학을 먹는다.

(4가)가 적격한 접속문이 되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밥’과 ‘떡’이 모두 명사구이며, 또한 (4나, 다)에서 보듯이 ‘먹-’의 목적어로 기능하므로, 대등한 자격을 갖는 것들끼리 접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가)에서는 동일한 명사구 ‘밥’과 ‘나이’가 접속되었으나 부적격하다. 그것이 (5나, 다)에서처럼 ‘밥을 먹는다’와 ‘나이를 먹는다’에서 ‘밥’과 ‘나이’가 각각 ‘먹-’의 목적어로 기능할 수 있는데도 결과된 문장 (5가)가 부적격한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밥을 먹는다’가 행위/동작을 나타낸다면, ‘나이를 먹는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동작과 상태 변화라는 서로 이질적인 표현이 접속되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문장이 된 것이다. 둘째로, ‘밥을 먹다’는 ‘밥’과 ‘먹-’의 의미로부터 ‘밥을 먹-’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즉 합성성이 지켜지는 일반적 구성인 반면에, ‘나이를 먹다’는 그 ‘나이’와 ‘먹-’이라는 구성요소로부터 ‘나이를 먹다’의 의미를 도출할 수 없는 즉 합성성이 지켜지지 않는, 일종의 관용 구성이기 때문이다. 관용 표현의 일부가 다른 요소와 접속되었으므로 부적절한 표현이 된 것이다. (6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작용하는데, ‘수학’이 ‘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수학을 먹다’가 화용적으로 부적격한 표현이 되고, 따라서 ‘밥과 수학을 먹다’가 화용적으로 부적격한 표현이 된 것이다.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명사구와 명사구라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이나 접속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엄격한 제약 조건이 있어서, 통사적 자격의 대등성과 함께, 접속되는 요소들이 지니는 의미상의 특성도 또한 작용한다. 그렇더라도 명사구끼리의 접속 등에서는 그것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의 확인이 비교적 쉽다. 접속된 구들 각각이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각각의 요소들이 갖는 의미적인 특성이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과 절의 접속에서는 그런 대등성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절이란, 그 정의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근간 성분이 모두 갖추어진 단위이므로, 자체로 의미적 완결성 정도의 성질을 갖는 독립적인 단위이며, 그런 단위 두 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 자체로는 각 절들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절에 포함되는 동사나 형용사 등의 서술어이다. 국어의 동사와 형용사 등은 의존 형식으로서 어미가 결합될 것을 요구하고, 그 결합되는 어미들이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가지므로, 절의 대등성 확인은 명사구 등의 경우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절도 또한 문장의 어떤 구성 단위라고 보면, 그것들의 대등 접속이 불가능할 개념적

인 이유는 없으며, 다만 구의 접속에서보다 더 복잡한 어떤 제약 조건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의 접속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 다음의 예들을 보자.

(7)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사이다를 마신다.

나. 철수가 키가 크고, 영이가 얼굴이 예쁘다.

다. 철수가 의사이고, 영이가 환자이다.

(8)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시계가 고장이 난다.

나. *철수가 뽀뽀하고, 바다가 푸르다.

다. *이것이 법이고, 철수가 의사이다.

(7)과 같은 유형은 접속문에 대한 연구의 초기부터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각 동사절끼리, 형용사절끼리, 계사절끼리로, 동일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유형의 절들끼리는 언제나 대등하게 접속될 수 있는가? (8)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들도 보자.

(9)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예쁘다.

나. *철수가 착하고, 영이가 의사이다.

다.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의사이다.

(10) 철수가 안경을 쓰고, 영이가 키가 크고, 영수가 대학생이다.

(9)는 각각 동사절과 형용사절, 형용사절과 계사절, 그리고 동사절과 계사절의 접속문인데, 모두 부적격하다. 그러나 그 부적격성이 단지 서술어들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은 (10)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10)에서는 동사절, 형용사절, 계사절이 모두 접속되었으나, 그 결과된 문장은 적격한 것이다.

(7 - 10)의 예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절들이 접속될 때 그 절들의 서술어들의 범주(즉, 품사)는 접속문의 적격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접속되는 절들의 범주보다는 어떤 의미적인 이유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하여 접속문의 적격성이 순수히 의미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어도 아래와 같은 예들에서는 통사적이거나 형태적인 사실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11)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떡을 먹어라.(평서 + 명령의 경우)
 나.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떡을 먹니?(평서 + 의문의 경우)
- (12) 가. *[영이와 철수]야!(호격의 접속)
 나. [철수와 영이]가 학교에 간다.
 다. 철수는 [영이와 순이]만 사랑한다.
 라. 학교에 간 사람은 [철수와 영이]이다.

(11)의 예들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동일한 서법(즉, 평서, 의문, 명령 등)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부적격하다.⁵⁾ 즉, 국어의 절 접속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서법을 갖는 절들끼리만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의미와는 무관한 통사적 제약이다. (12가)는 또 다른 이유로 부적격한데, (12나)에서는 격조사가, (12다)에서는 보조사가 각각 접속된 명사구에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호격 조사의 형태적 특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단지 호격 조사가 문장을 종결시키기 때문에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계사(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라고 부른다)가 결합된 (12라)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접속문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조건은 어느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요인의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가운데 의미적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3. 대등 접속문의 성립 조건

3.1 통사적 조건: 동일한 교점

명사구와 부사구 또는 명사구와 동사구, 동사구와 부사구 등은 접속될 수 없다. 또한 절의 접속에서도, 앞에서 본 것처럼 서법이 다른 두 절은 접속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접속되는 두 개의 교점이 동일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사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호격 조사가 결합된 명

5) 이런 현상이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영어의 경우라면 and와 마찬가지로 or도 대등 접속문을 이루는데, ‘Go away, or you shall die.’가 ‘꺼져! 안 그러면 죽어 버리겠다.’ 정도로 번역된다고 볼 때에, 이 or는 명령문과 평서문을 접속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격한 접속문을 이룬다. 반면에 이를 그대로 하나의 접속문으로 적절히 번역하는 것이 국어에서는 불가능하다. 즉, 국어에서는 명령문과 평서문이 대등 접속문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인데, 영어와 국어가 갖는 접속현상에서의 차이점이다.

사구들이 접속될 수 없는 것은 형태적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구와 구의 접속에 엄격한 통사적 조건이 작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명사구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기능하며 또한 동사로부터 격과 의미역을 받는 반면에 부사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명사구와 부사구가 접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서법을 갖는 절들이 접속될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국어에서 서법을 나타내는 어미는 하나의 문장에 하나만 실현되는데(이런 이유로 문말어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령 평서의 선행절과 명령의 후행절처럼 서로 다른 서법을 갖는 두 개의 절들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문말어미가 하나의 문장에 모두 나타날 수는 없으므로, 선행절이나 후행절 가운데 하나는 부적격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 문장이 부적격하게 된다.

3.2 의미적 조건: 동질적인 서술 내용

적격한 접속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미적 조건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미라는 것은 복잡 미묘한 것이어서, 통사적 현상 등과는 달리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 조건도 모호한 채로 남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비교적 쉽게 판단되는 것부터 보기로 하자.

(13)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책을 읽는다.

나. 철수가 키가 크고, 영이가 얼굴이 예쁘다.

다.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얼굴이 예쁘다.

(13가)는 선행행절이 모두 어떤 행위/동작을 나타내고, (13나)는 어떤 속성/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접속문이 적격하다. 반면에 (13다)는, 선행행절이 행위/동작을 나타내고 후행절이 속성/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접속문이 부적격하다. 즉, 접속되는 두 절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행위/동작이나 또는 속성/상태라는 측면에서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에 따라 접속문의 적격성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절들이 나타내는 행위/동작 또는 속성/상태 등의 의미적 특성을 ‘서술 내용’이라고 부르기로 하면, 접속문의 적격성을 결정할 의미적 특성으로 ‘서술 내용의 동질성’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서술 내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어의 행위/동작, 자연 현상, 상태의 변화, 속성, 상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 (14) 가. 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책을 읽는다. 코끼리가 코로 물을 뿜는다. 매미가 노래를 부른다. 파리가 날갯짓을 한다.}
 나. 칠수가 밥을 먹고, {?달이 뜬다. ?허수아비가 비에 젖는다. *영이가 예쁘다. *백두산이 높다.}

(14가)는 그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서술 내용이 행위/동작의 표현이라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주어도 서로 다르고, 행위/동작의 내용도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도 모두 적격하다. 반면에 (14나)는 선행절이 행위를 서술한다면, 후행절은 각각 자연 현상, 상태의 변화, 속성, 상태 등을 서술하는데, 모두 이상하거나 부적격하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 내용이 동질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격성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 (15) 가. 영이가 예쁘고, {불독이 밍다. 코끼리가 순하다.}
 나. *영이가 예쁘고, {백두산이 높다. 칠수가 기쁘다.}
 다. *영이가 예쁘고, {이 연필이 길다. 스키드 미사일이 비싸다.}

(15가)가 모두 적격한 것도 그 선행절이 모두 동질적인 서술 내용(즉,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15나)가 모두 부적격한 것은 선행절이 속성을 서술한다면 후행절은 각각 상태, 심리 상태 등의 이질적인 서술 내용을 갖기 때문이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15다)와 같은 예들에서이다. 선행절이 모두 속성을 서술하는데도 부적격한 것이다. 왜 그럴까? 속성이라는 것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세분화한다면, (15다)의 선행절에서는 ‘생김새’를, 후행절에서는 각각 ‘길이’와 ‘값’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속성의 하위 범주가 다시 달라지는 경우에는 접속문이 부적격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서술 내용의 동질성으로써 접속문의 적격성을 판단할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적격한 접속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정도만으로도 접속문의 적격성에 대하여 몇 가지는 보다 잘 설명~예측할 수 있다.

첫째, 대립되거나 비교되는 내용을 갖는 두 절들은 적격한 접속문을 이룬다.

- (16) 가. 영이가 예쁘고, 바둑이가 밍다.

- 나. 이 봉우리는 높고, 저 봉우리는 낮다.
 다. 이 연필이 짧고, 저 작대기가 길다.
 라. 소나기 구름이 검고, 백합이 희다.
 (17) 가. 철수는 공을 잘 차고, 영이는 피아노를 잘 친다.
 나. 철수는 씩씩하고, 영이는 얌전하다.

(16)은 모두 선행절이 대립되는 서술내용을 갖는데, 적격하다. 그 이유는? 대립이라는 것이 어떤 공통적인 비교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라면 각각 생김새, 높이, 길이, 색깔 등이 그 비교의 기반으로서의 공통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서술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질적인 서술 내용을 갖고, 적격한 접속문이 된다. (17)은 선행절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인데, 서술어가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 적격하다. 비교도 대립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통적인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접속되는 절들의 범주가 다르더라도, 서술 내용이 동질적이면 접속될 수 있다. 특히, 동사절 등이 속성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속성을 서술하는 형용사절과 접속이 잘 된다.

- (18) 가. 영이가 예쁘고, {철수가 공부를 잘 한다. 순철이가 술을 못 마신다. 영철이가 밥을 많이 먹는다.}
 나. Mary는 예쁘고, Jane은 (가령, 빵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
 다. 팬더는 생김새가 귀엽고, 멧잎을 먹는다.

(18가)는 선행절이 형용사절인 반면에 후행절은 동사절인데, 모두 적격하다. 이런 현상은 특히 그 동사절에 ‘잘’, ‘못’, ‘많이’ 등의 부사어가 수식어로 개재되어 있을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동사절이 때로는 속성을 서술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동사절이 속성을 서술하는 것이 반드시 부사어가 개재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18나, 다)이다. (18나)는 Mary와 Jane이라는 두 미국 여성의 특징 등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후행절이 속성을 서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만 적격하다. (18다)에서는 그 후행절이 행위가 아니라 속성을 서술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히 보인다.

3.3 ‘공통 화제’와의 비교

대등 접속문의 적격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과거의 논의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공통 화제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우리의 이 글에서의 주장은 공통 화제보다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 내용의 동질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느 주장이 더욱 타당할까?

공통 화제라는 조건이 처음 제기된 것은 Lakoff(1971)의 논의에서였다. 그는 접속문이 적격하기 위해서는 접속되는 두 절들 사이에 공통 화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아래(19)의 문장은,

(19) My grandmother wrote me a letter yesterday and six men can fit in the back seat of a Ford.

Gleitman(1965)에서 and를 사용하여 어떤 두 문장이나 접속시킬 수 있다는 예로써 제시된 것이나, 자신이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공통화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혹 이 문장이 적격한 것으로 해석되려면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담화상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의 견해도 위의 문장은 부적격하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단지 공통 화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담화상의 어떤 전제가 없기 때문일까? 필자로서는 영어의 문장들에 대해서 그 부적격성의 원인까지 판단을 시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어적인 관점에서 논하자면, 위의 문장은 선행절이 과거의 행위를 서술한다면, 후행절은 현재의 상태를 서술하고, 따라서 부적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통 화제의 유무로써 접속문의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Lakoff의 주장에서는 그 공통 화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 요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격한 접속문이 되지 못하는 예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 (20) 가. *칠수는 밥을 먹고, (칠수는) 똥똥하다.(선행절이 행위/동작의 서술일 경우)
 나. *칠수는 밥을 먹고, 영수는 밥을 싫어한다.
 다. 칠수는 밥을 먹고, 영수는 핏자를 먹는다.

(20가)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철수’를 주어로 가지나, 부적격하다. (20나)는 모두 ‘밥’을 목적으로 가지나, 역시 부적격하다. 즉, Lakoff적인 공통화제가 외현적으로 실현되었는데도 부적격한 것이다. 반면에 (20다)는 선행절이 단지 동사에서만 일치하는데, 적격하다. (20다)의 적격성만을 따지자면 Lakoff의 공통화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20가, 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반면에 우리의 서술 내용의 동질성이라는 개념으로는 위의 (20가, 나, 다)가 모두 설명될 수 있다. (20가, 나)는 선행행 절의 서술 내용이 서로 이질적인 것인 반면 (20다)에서는 동일하므로 적격성이 서로 달라진 것이다.

서술 내용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단어나 구, 또는 담화상의 전제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것들의 존재와 무관하게 접속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 화제의 존재라는 조건보다 더 뛰어난 설명력을 갖는다.

공통 화제의 존재라는 조건이 특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는 다음의 (21나)와 같은 것들이다.

- (21) 가. *철수가 밥을 먹고, 개나리가 핀다.
 나. 어저께, 철수가 밥을 먹었고, 개나리가 피었다.
 다. ?지금, 철수가 밥을 먹고, 개나리가 핀다.
 (22) 가. ?날씨가 따뜻하고, 개나리가 핀다.
 나. 날씨가 따뜻하고, 개나리가 피었다.

(21가)가 부적격한 것을 Lakoff(1971)의 방식으로라면, 공통화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 설명은 특히 (21나)에서 유력하다. ‘어저께 있었던 일’ 정도의 공통화제가 있기 때문에, (21가)와는 달리, 적격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장들의 적격성을 우리의 ‘서술 내용의 동질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1가)는 어렵지 않다. 선행절이 행위/동작을 서술한다면, 후행절은 자연 현상을 서술하므로, 서술 내용이 달라서 부적격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가 적격한 이유는? 행위나 자연 현상 등이 현재 일어나는 것인지 또는 과거에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행위/현상 등은 이미 인식적으로 고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을 보여 주는 것이 (21다)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일’ 정도의 공통 화제를 상정할 수 있

으나 그래도 (21나)보다 수용성이 떨어지는데, Lakoff(1971)의 방식으로는 (21나)와 (21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22가)도 자체만으로는 어색한데, 선행절이 상태를 서술하는 반면 후행절은 자연 현상을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22나)가 자연스러운 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상태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3.4.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차이점

종속 접속이 대등 접속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 내용의 동질성에 따라 접속문의 적격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 가. 철수가 밥을 먹어, 영이가 기쁘다.

나. 철수가 갑자기 꺼안아서, 영이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24) 가. 철수가 너무 똥똥해서, 영이가 그를 꼬집는다.

나. 막대기가 너무 길어서, 철수가 톱으로 자른다.

(23)은 선행절이 행위/동작을, 후행절이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24)는 선행절이 속성을, 후행절이 행위/동작을 표현하는데도 모두 적격하다. 이런 점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차이점을 보여 주는 것인데, 최근의 논의들에 따라 종속 접속의 선행절을 부사절로 보면, 이해될 수 있다. 부사절의 서술 내용이 행위/동작인지 또는 지속적인 상태나 상태 변화 등인지는 주절이 행위/동작을 서술하는지 상태를 서술하는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4. 대등 접속의 구조와 ‘그리고’

(25) [XP1 conj XP2]_{XP0}

(26) [NP1 와 NP2]_{NP0}

(27) [S1 -고 S2]_{S0}

접속문의 구조는 보통 (25)처럼 나타내진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명사구의 접속은 (26)처럼, 절의 접속은 (27)처럼 나타내진다. ‘와’와 ‘-고’를 접속사로 보면 모두 (25)와 동일하여, 얼핏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26)과 (27)에서의 ‘와’와 ‘-고’가 과연 접속사인가? 명사구 접속부터 보자.

- (28) 가. [너와 나와]이
 나. [너와 나와]를
- (29) 가. [철수하고 영이하고]가 학교에 갔다.
 나. 철수가 [밥이랑 떡이랑]을 먹었다.
 다. 이것은 [너와 나와]의 문제일 뿐이다.
- (30) 가. 철수가 영이와/하고/랑 학교에 간다.
 나. 철수가 영이와/하고/랑 닳았다.

(28)은 현대국어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으나 중세 국어에서는 자연스런 표현이다. (29)는 현대 국어에서도 자연스럽다. 즉, ‘와’, ‘하고’, ‘이랑’ 뒤에 주격, 대격, 속격 등의 격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와’, ‘하고’, ‘이랑’을 접속사로 볼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접속사 뒤에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범상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각 예들에서 NP2 뒤에 나오는 ‘와’, ‘하고’, ‘이랑’은 그 뒤에 또 다른 명사구 NP3가 없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보다 잘 보여 주는 것이 (30)이다. 그렇다고 NP1 뒤의 ‘와’등과 NP2 뒤의 ‘와’ 등을 별개의 형태소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6)의 구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절의 접속에서도 약간 다른 양식으로 드러난다. 즉, ‘-고’도 역시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 (31) 가. [철수가 밥을 먹고, 영이가 사이다를 마시고] 한다.
 나. [철수가 착하고, 영이가 예쁘고] 하다.

위의 예들에서는 선행절의 말미에 나타나는 ‘-고’가 후행절의 말미에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선행절의 ‘-고’가 접속사로서 그것을 후행절과 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면, 후행절의 ‘-고’는 그것을 무엇과 접속시켜 주는가? 접속될 제3의 절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선행절의 ‘-고’와 후행절의 ‘-고’를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김영희(1987)에서는 이런 현상을 동일 접속사의 반복 가능성이라고 하면서,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구별해 주는 징표의 하나라고 보았는데, 우리는 ‘-고’의 이런 특징이 명사구 접속에서의 ‘와’, ‘하고’, ‘이랑’ 등에서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에서 다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혹시 명사구 접속에서의 ‘와’, ‘하고’, ‘이랑’과 절 접속에서의 ‘-고’ 등이 접속사가 아닌 것이 아닐까? 즉, 한

국어의 접속사는 다른 것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을 보자.

(32) 철수가 밥을 [많이 (그리고) 빨리] 먹었다.

부사구들이 접속될 때에는 그 사이에 아무 요소도 나타나지 않거나, ‘그리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는 접속 부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부사구의 접속에만 아니라, 명사구 접속이나(33), 절의 대등 접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34),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paragraph에도 나타날 수 있다(35, 36).

(33) 철수가 [밥(과) (그리고) 떡을] 먹었다.

(34) 철수가 밥을 먹고, (그리고) 영이가 떡을 먹었다.

(35) 가.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리고 영이가 책을 읽는다.

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리고 영이가 예쁘다.)

(36) 가.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리고 영이가 책을 읽니?}

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리고 영이가 의사가 되어라!}

그런데 (33)과 (34)에서의 ‘와’, ‘-고’ 등을 접속사로 본다면, ‘그리고’와의 관계가 이상해진다. 접속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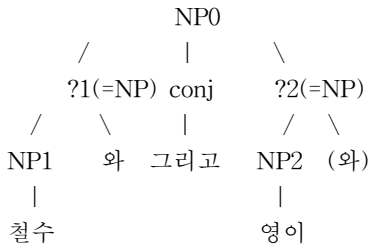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리고’는 (34)에서처럼 절의 접속에 나타나는 ‘그리고’와 매우 유사하다. (35가)에서처럼 동질적인 서술 내용을 갖는 두 개의 평서문을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으나, (35나)에서처럼 이질적인 서술 내용을 갖는 두 개의 평서문을 ‘그리고’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한 (36)에서처럼 평서문과 의문문, 평서문과 명령문을 연결하여 하나의 paragraph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리고’는 이처럼 부사구끼리의 접속, 명사구끼리의 접속, 절끼리의 접속, 그리고 문장끼리의 연결 등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Payne(1985:5-6)의 논의가 참조된다. 그는 접속사의 사용 범위와 관련하여, 접속되는 요소들에도 계층(hierarchy)이 있어서, S - VP - AP - PP - NP와 같은 순서로 계층이 낮아지는데, 예를 들어 S끼리의 접속에도 사용되고 NP끼리의 접속에 사용되는 접속사가 있다면, 그 접속사는 그 중간 계층인 AP나 PP끼리의 접속에도 당연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Payne의 이런 관찰과 또한 (32 - 36)에서 ‘그리고’가 명사구끼리, 부사구끼리, 절끼리의 접속뿐 아니라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도 모두 사용될 수 있

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한국어의 접속사로 ‘그리고’를 상정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접속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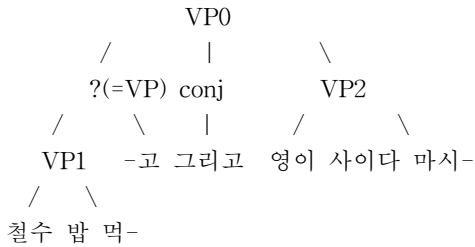
(37) 가. 명사구 접속



나. 부사구 접속



다. 절 접속



(37)의 구조는 몇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접속사(conj)의 자리에 ‘그리고’가 들어간다고 보면, 부사구 접속문의 구조는 (25)에서 본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접속문의 구조와 일치한다. 다만 명사구 접속에서의 ? 교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절 접속에서의 ? 교점이 아직 불분명한데, 그렇더라도 두 접속의 구조는 매우 유사하여, ‘와’, ‘하고’, ‘이랑’ 등과 ‘-고’는 평행한 관

계에 있다.

먼저 명사구 접속부터 보자. ‘와’, ‘하고’, ‘이랑’ 등이 접속사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 흔히는 공동격 조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명칭 그대로, 단지 주어 등의 명사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앞에서 본 (30)의 예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면 ‘와’, ‘하고’, ‘이랑’ 등은 보조사가 될 것이고, 이는 (37가)의 ?를 모두 NP로 바꾸게 하는데, 그 결과되는 구조는 (25)와 정확히 일치한다(혹은 조사가 표제라고 본다면, KP가 될 것인데, 그러더라도 [KP1 conj KP2]_{KPO}의 구조가 되어,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다음으로 절 접속에서의 ‘-고’를 보자. 그것이 접속사가 아니라면, 기능은 무엇일까? 대안 가운데 하나는 단지 형태론적 폐쇄를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근거는 무엇보다도 ‘-고’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국어의 동사와 형용사 등의 서술어는 의존형식이므로 그 뒤에 반드시 어미가 결합하여야만 하는데, ‘-고’가 그런 폐쇄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은 명사구 접속에서의 ‘와’, ‘하고’, ‘랑’ 등의 경우와도 매우 유사하다. 이들도 특별한 어휘적 의미를 갖는 요소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37다)의 구조에서의 ?는 결국 그에 선행하는 VP1의 (적어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VP1과 VP2의 서술 내용의 동질성에 따라서 절 접속의 적격성이 결정된다는 우리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형태론적 폐쇄라는 기능이 그 선행하는 VP1의 범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보면, (37다)의 ?는 결국 VP가 될 것인데, 이는 (25)의 구조와 일치하게도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국어의 접속문의 구조를 (37)처럼 보면, 이것은 일반 언어의 접속문의 구조 (25)와 일치할 뿐 아니라, 양인석(1972)에서부터 제기된 (3)의 dilemma도 해결된다. 즉, 접속문에서 의미적인 관계로는 (3가)의 구조가 타당해 보이나, ‘-고’가 선행절에 결합된다는 형태론적 특성을 반영하면 (3나)의 구조가 더욱 적절해 보인다고 하였던 것인데, ‘-고’의 형태론적 특성과 접속문 일반의 통사론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접속문의 구조는 (3가)와 유사한 (25)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밝혀진 것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접속문의 성립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사적 조건으로, 구의 접속에서는 접속되는 두 요소가 동일한 교점이어야 하지만, 절의 접속에서 그 절의 핵인 서술어가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또는 '명사 + 계사'인가 하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형태적 제약 조건으로, 호격을 갖는 명사구들은 접속될 수 없다.

셋째, 절의 접속에서의 의미적 조건으로, 동질적인 서술 내용을 갖는 절들끼리 접속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서술 내용이란 행위/동작, 자연 현상, 상태의 변화, 속성, 상태 등이다.

다음으로, 국어의 접속사는 '그리고'이다. 절의 접속에 사용되는 '-고'는 단지 선행절이 아직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요소일 뿐 접속사라고 보기 어렵다. 명사구 접속에서 접속사로 여겨졌던 '와'도 접속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흔히 말하는 공동격 조사라는 명칭대로 주어나 또는 목적어 등으로 기능하는 명사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뿐, 반드시 명사구들을 접속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한국어의 접속문의 구조는 (37)이며, 이것은 다른 언어들에서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접속문의 구조 (25)와 일치한다.

참고문헌

- 권재일. (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서울: 집문당.
- 김영희. (1987).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 11, 국어연구소.
- 서태룡. (1979). 국어 접속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0.
- 서태룡. (1998). 접속 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 태학사.
- 양인석. (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유현경. (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 이은경. (1998). 접속 어미의 통사.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 태학사.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주시경. (1910). *국어문법*.
- 최현배. (1955). *우리말본(깊고 고침)*. 서울: 정음문화사.
- 한동완. (1996). *국어의 시제 연구*. 서울: 태학사.
- Gleitman, L. (1965). Coordinating Conjunctions in English. *Language* 51.
- Grover, C. (1994). Coordination.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 Linguistics*, Pergamon Press.
- Lakoff, R. (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ed. by C. J. Fillmore and D. T. Langendoen,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 Payne, J. R. (1985). Complex Phrases and Complex Sentences, in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I*, ed. by T. Shopen, Cambridge Univ. Press.
- Radford, A. (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Cambridge Univ. Press.

고재철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63) 290-1321

e-mail: jskoh@core.woosuk.ac.kr

Received: 31 March 2003

Accepted: 10 May 2003

Revised: 17 May 2003